

화순중부교회 가정예배지

사마리아 여인처럼

만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13~15



사도신경

찬송가 144.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3.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후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대표기도 ※ 기도자가 없을 시 생략 가능

말씀 읽기

¹³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¹⁴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¹⁵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말씀 나눔

사마리아에는 육신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에 허덕이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여행에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피하는 사마리아를 일부러 통과해서 가기로 결정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마리아든 어디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으로 죽어가고 있던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일부러 찾아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일부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목마름에서 벗어나 영원한 만족를 누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에서 주님을 만났던 여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이 물

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만족은 다시는 다른 것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는 생각이 들지도 않을 만큼 영원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만족이 언제 우리에게 임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요 4:25)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는 “내가 그라”라고 대답하십니다.

여인이 알게 된 것이라고는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동네 사람들에게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와서 보라!”라고 소리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부끄러워 뜨거운 정오에 홀로 물을 뜨러 나왔던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녀에게 참된 만족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믿어진다면, 우리도 이 여인처럼 모든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주님을 만난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구원하신 그분의 백성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누리고, 이전에 메여있던 모든 구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만족과 자유함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죽음으로부터 살림을 받은 자의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누렸던 바로 그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눔

1. 무엇을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기쁩니까?
2. 주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넘지 못하는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있습니까?